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0.14(금) ~ 2022.10.20(목)

제공일시 2022 10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0.14(금) ~ 2022.10.20(목)

제공일시 2022 10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EU, 중국 '전면적 경쟁자'로... 3년 만에 강경기조로 전환

- 유럽연합(EU)이 중국을 3년 만에 '전면적 경쟁자(all-out competitor)'로 전환하고, 대중 강경 기조로 선화할 것으로 보임 (뉴스스, 2022.10.18) 신정원 기자
-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외교 담당 부서는 보고서에서 중국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잠재적 참여 영역이 제한된 '전면적 경쟁자'로 봐야 한다고 권고했음
- 이 보고서는 EU가 대중 전략 수정을 논의하는 17일 외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나왔는데, EU의 대중정책이 3년만에 바뀌는 것을 의미함
- EU는 2019년 중국을 '협력파트너이자 경쟁자, 체제 라이벌'로 규정했는데,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위협에 주목하는 모습임

### 2. EU, 원자재법 제정 추진... 제2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되나

- 유럽연합(EU)이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에 나서면서, 제2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머니S, 2022.10.19) 최유빈 기자
- EU는 원자재법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으며, 법안 초안은 내년 1분기 중에 공개될 예정임
- 원자재법의 목적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EU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함임 이를 위해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역량, 연구·혁신(R&I)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임
- EU는 원자재법으로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 식별, 자금·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전략적 비축 투명성 제고, 환경 등 관련 표준 개발 노력 등도 병행할 방침임

### 3. 美 에너지부, 'Industrial Heat Shot' 출범... 산업부문 탄소배출 저감 추진

-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the Energy, DOE)는 9월 21일 식음료에서 시멘트, 철강에 이르기까지 산업부문에서 제품 생산 시 이용되는 열 및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Industrial Heat Shot'을 출범했음 (인더스트리뉴스, 2022.10.14) 정한교 기자
- 이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85% 저감하기 위해 비용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장비 전기화, 청정전력이용, 열펌프, 마이크로파시스템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열에너지 혹은 원자력 등을 통해 저탄소 열원 통합 확대, 이외에 바이오기반 제조, 전기분해 등 저열공정 기술혁신 등의 목표가 추진됨

## 1. 미 애리조나, 텍사스 등 넷제로 공역한 6대 대형은행 민사조사요구서 보내

- 미 애리조나, 텍사스주를 포함한 공화당 주도의 주 검찰총장은 ESG 관행이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미국 6대 은행에 민사조사 요구서를 보냈음
- 블랙록과 모닝스타를 향한 공격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NZBA(넷제로뱅크얼라이언스)에 대한 은행들의 관여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면서, JP모건,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등을 대상으로 잡았음
- 이들은 미국 은행들이 좌파의 화석연료 산업을 파산시키는 기업 활동가들의 정치적 어젠다를 우선시한다고 보고, 이것이 잠재적인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음

(로이터, 2022.10.20) Niket Nishant 기자

## 2. 글로벌 메이저 화학회사 다우, 300만톤 순환솔루션 플랫폼 출시

- 화학 및 소재회사의 거물인 다우가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서클러&리뉴어블 솔루션(Circular & Renewable Solutions)’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300만미터톤의 순환 및 재생가능한 솔루션을 상용화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음
- 다우는 2020년 지속가능성 목표를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100만톤의 플라스틱을 수집,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 목표였음
- 이번에 ‘Transform the Waste’라는 업데이트된 2030년 목표에 따라, 플라스틱 및 다른 형태의 대체 원료를 변형시켜 300만톤의 순환경제 솔루션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음
- 플라스틱 재활용 용량을 대폭 확대하고, ‘무라 테크놀로지(Mura Technology)’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 대규모 재활용 시설을 건설함

(ESGToday, 2022.10.18) Emily Shain 기자

## 3. 블랙록 기후 위기 위해 ‘트랜지션 캐피탈 부문’ 설립

- 블랙록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 관련한 기회에 투자하기 위해 ‘트랜지션 캐피탈’이라는 사업부문을 설립했음
- 이 그룹은 새로운 투자 전략과 자금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심화시킬 예정이며, 기존 고객 및 신생 고객의 CEO 및 정부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함
- 이러한 움직임은 오는 11월 COP27의 회담에 앞서 이뤄졌음 최근 블랙록은 민주당 공화당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3분기에만 850억달러가 유입되는 등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함
- 이 사업부문 담당자는 맥킨지에서 청정기술 부문에서 일했던 디컨 피너(Dickon Pineer)에 의해 운영된다고 함

(Reuters, 2022.10.17) Simon Jessop 기자

## 1. CA100+, 기후목표는 진전중이나 탈탄소 전략에서 뒤쳐져

- 클라이밋 액션 100+(CA100+)가 넷제로 기업들의 벤치마크 평가결과를 발표했음 평가 결과, 넷제로 약속에서는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기업에서 탈탄소 목표에 부합하는 이행전략 수립에 진전이 별로 없음
- CA100+는 개별 포커스 기업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넷제로기업벤치마크를 도입했는데, 159개 탄소배출기업의 단기, 중장기 배출목표 설정, 탈탄소화전략, 기후정책 참여, 자본 배분 조정 등 10개 지표별 기업의 진척사항을 측정해 발표함
- 1.5도 경로와 일치하는 장기목표를 가진 기업은 9%p 이상 증가했고, 2050 넷제로 약속기업은 75%(3월에는 69%)로 증가했음 하지만 자본지출계획을 배출목표와 일치시키는 기업은 10%에 불과함

(ESGToday, 2022.10.14) Mark Segal 기자

(보고서)

## 2. [탄소중립 최전선] ① 꿈틀대는 탄소저장 비즈니스... 척박한 환경을 '기회'로

- 아이슬란드는 어업과 금융업, 관광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지만, 전 지구적인 과제로 떠오른 '탄소중립'에서만큼은 유럽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이는 척박한 화산지대를 활용한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보유한 아이슬란드 전력 공기업 레이캬비크에너지의 자회사인 '카브픽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 '카브픽스'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현무암을 이용한 탄소저장 실증에 성공했으며 CCS 비즈니스를 본격화하기 위한 여러 도전을 진행하고 있음
- 아이슬란드는 대부분 화산 현무암을 이뤄져 있기 때문에, '카브픽스'는 아이슬란드에 저장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약 2500기가톤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함

(동아사이언스, 2022.10.17) 김민수 기자

## 3. 폐기물·부산물로 만든 음식시장 쑥쑥 크다

- 상품성이 낮아 폐기될 재료로 새로운 제품을 만든 '업사이클링 푸드'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음
- 이상기후에 따른 환경변화와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 식품들이 주목받기 때문임
- 국내 식품기업들도 업사이클링 푸드를 선보이고 있는데, CJ푸드빌 뚜레쥬르의 '착한 빵식 통밀 식빵', CJ제일제당의 '익사이클 바삭칩' 등임

(파이낸셜뉴스, 2022.10.18) 박지영 기자

## 1.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년부터 전기차·수소차만 구매

- 내년부터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하며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구매할 수 없음
- 환경부는 19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은 제1종 저공해 자동차만 구매하거나 빌릴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 1종 저공해 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태양광차 등임 현재 국가기관 등은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여야 하지만, 그중 1종 비율이 80% 이상이면 됨 내년부터는 전기차·수소차 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올린다는 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임
- 환경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음

(조선비즈, 2022.10.19) 손덕호 기자  
(브릿지경제, 2022.10.19) 곽진성 기자  
(뉴스핌, 2022.10.19) 성소의 기자

## 2. 시장은 크는데 규제·ESG 어렵네... 데이터센터업계 속앓이

- 국내 데이터센터(IDC)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이번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대거 먹통되면서 규제의 칼날이 정조준될 조짐을 보임
- 당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 사업자에 데이터센터사업자가 포함되고, 재난 대비 항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추가하는 법 개정안임
- ESG 경영이 중시되는 분위기도 경영의 어려운 요소로 여겨지는데, 데이터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데 드는 소비 전력량이 상당하기 때문임
- 삼성SDS, 네이버 등 일부 기업은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서늘한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이번 화재 사태를 계기로 안전 매뉴얼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힘

(뉴스토마토, 2022.10.18) 이지은 기자

## 3. 30개 기업이 온실가스 62% 배출... 무상할당 배출권 지적

-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은 1위 '포스코'(제철) 7849만 207톤, 2위 '한국남동발전'(발전) 3722만 8227톤, 3위 '한국남부발전'(발전) 3445만 7856톤 등으로 집계됨
- 이들을 포함한 상위 30개 기업이 2021년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 6억 7960만톤(잠정) 중 4억2302만톤을 배출, 62%를 차지했음
- 이중 무상할당 배출권으로 배출한 양은 94%인 3억 9885만톤이나 됐음 2021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시장의 평균거래가격 톤당 1만 9709원을 적용하면, 30개 기업이 약 7조 8608억원어치의 온실가스를 공짜로 배출한 셈임
- 상위 10개 기업의 주종은 '제철'(철강)과 '발전'(석탄)임 현재 기업 단위 1위는 포스코지만, 여러 개 자회사로 쪼개놓은 발전사들의 배출량을 합치면 석탄화력발전이 단연 1위로 이 두 부문에서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2050 탄소제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됨

(내일신문, 2022.10.14) 남준기, 김아영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10.14(금) ~ 2022.10.20(목)

제공일시 2022.10.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 ISSB, 스코프3 포함하고 이중중대성 배제로 가닥... 지속가능성 정의도 명확히 밝혀야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21일(현지시간)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관련된 중대한 결정 두 가지를 발표함. 스코프3 배출량은 공시항목에 포함시키되,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개념은 적용하지 않기로 함
- ISSB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스코프(Scope) 1, 2뿐만 아니라 스코프 3(Scope 3)까지 공개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힘. 기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인 스코프1과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인 스코프2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협력업체 및 제품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인 스코프3까지 모두 기후 공시에 포함시킨다는 뜻임
- ISSB는 또 IFRS(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중대성(혹은 중요성, Materiality)'의 정의를 사용하겠다고 밝힘. IFRS에서 말하는 '중대성'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나 대출 등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포함함. 이는 결국 EU에서 말하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에 관한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걸 의미함
- ISSB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기업의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 배출량이 공시 항목에 포함됨. ESG 투데이는 "기업이 기후 리스크와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이 점점 더 많이 요구함에 따라, 이번 결정은 기후 및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 기준 개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함. 왜냐하면, 유럽, 영국, 미국 등 각국의 규제당국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요건을 도입했거나 준비중인데, 대부분 ISSB 공시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임
- 스코프 3 보고는 스코프1, 2와 달리 상당한 논란이 발생하는 지점임. 대부분의 기업에선 스코프1, 2에 비해 스코프3 배출량이 많게는 80~90%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정확한 계산 기준과 추적이 쉽지 않음. 하지만 스코프 3 배출량을 제외할 경우 해당 기업의 기후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원함
- ISSB는 스코프 3 배출량에 대한 기업 공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기업이 스코프3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제조항(relief provisions)'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구제조치는 향후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임. 이처럼 ISSB가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포함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스코프 3를 공개하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항과 비슷한 대목임. 미 SEC는 스코프 3 공시를 둘러싸고 기업에 대해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재계에 지적에 따라, 스코프 3 공시에 한해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외부 감사 의무화 시점도 2~3년 유예하기로 함
- 한편, ISSB는 "목표와 중대성(중요성) 평가에서 '기업가치(enterprise value)'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어떤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기회를 공개할 지를 서술함에 있어 '중요한(significant)'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이어 개념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뜻도 덧붙임
- 이는 지난 7월 EU(유럽연합)의 ESMA(유럽증권시장청)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그린워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의 정의를 밝혀야 한다고 밝힌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특히, ISSB는 이번 발표에서 IFRS 회계기준에서 사용되는 '중대성(중요성)'과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사용할 것을 명확히 함. 외부 환경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관한 재무정보만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임

(인팩트는. 2022.10.25) 박란희 편집장

(인팩트는. 2022.10.25) 박란희 편집장

- 최근 HSBC의 버스정류장 광고가 그린워싱으로 크게 논란이 됨. 영국의 광고심의기구인 광고표준위원회(ASA)는 “HSBC 광고는 친환경 자격증명에 관해 소비자를 호도했다”며 금지를 명령했다고 19일 (현지시각) FT가 밝힘
- ASA측은 HSBC가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과 삼림벌채에 관한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녹색 자격(green credentials)’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련의 광고를 금지했다고 FT는 덧붙임. 감독당국이 은행의 광고를 그린워싱이라는 이유로 금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함. ASA측은 이제 더이상 HSBC의 나무심기와 넷제로 달성계획을 홍보하는 광고 시리즈를 노출할 수 없다고 밝힘
- 또 다른 비슷한 사례로 지난 6월 테스코가 식물성 단백질에 기초한 식품 광고를 낸 데 관한 판결임. 이 판결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 제품군의 전체 제품 라이프사이클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로 마케팅을 뒷받침할 수 없도록 함. 이 외에도 독일 경찰의 DWS 압수수색, 영국 경쟁시장청의 3개 패션브랜드 지속가능성 주장에 관한 그린워싱 조사, 캐나다 공정위에 해당하는 경쟁국의 캐나다 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 조사 등이 연이어 벌어짐
- 이러한 배경 속에서 ISSB는 지속가능성, 중대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게 된 것임. 유럽연합과 GRI에서는 기후변화와 불평등 같은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봐야 한다는 것임